

제80회 제 1차 목포시 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1년 4월 1일 상오 10시 30분

2. 폐 의 : 단기 4291년 4월 1일 하오 12시 50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삼성

5. 출석의원

재적 16명중 출석의원 15명

결석 강영락 의원

6. 출석공무원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교육청 차영균 서무과장

7. 의사일정

가. 보고사항

(1) 제 79회 회의록 통과

(2) 진정서 제출 상황보고

대형 준선 대치 진정

사료 적정배급 진정

(3) 청원서 접수 상황보고

국군 전몰장병 묘비 건립위원장으로부터

(4)관외 출장 결과보고

서울 - 김삼성 의장

광주 - 정응표 부의장

나. 부의안건

- (1) 단기 4291년도 제 3회 목포시 일반 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 (2) 단기 4291년 제 2회 목포시 동정 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 (3) 단기 4290년도 목포시 각종 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일반회계
수도 특별 회계
동정 특별 회계
공익 전당포 특별 회계
재건축택 특별 회계
교육위원회 특별 회계
- (4) 목포시 도선비 특별 회계 설치안
- (5) 단기 4291년도 목포시 도선비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6) 각종 차량적재선 신조경비 기채 승인안
- (7) 목포시 동세 조례 개정안
- (8) 목포시의회 의원비용 변상 조례 개정안
- (9) 단기 4291년도 목포시 교육 위원회 일시 차입안
- (10) 목포시 교육 위원 보선의 건

8. 부의 사항

※제 79회 회의록 통과

장건식 총무과장 낭독

◇김 남 진 의원

- 회의록 서명에 본 의원으로 되어있으나 제 79회 회의에는 불참이 있으며 서명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시정해 주시기 요망한다. 즉시 정정

※진정서 발송 상황보고

※청원서 접수 상황보고

◇장 건 식 총무과장

- 발송된 진정서의 원안 및 청원서의 낭독이 있었음

※관외 출장 결과보고

◇정 응 표 부의장

- 사료 적정배급 진정차 상도 절충하였다는 요지의 보고가 있었음.

◇김 삼 성 의장

- 대형 준설선 대치 진정차 상경하여 해무청과 OEC 당국을 방문하여 대동 내목하여 현지를 답사한 이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 외 화력 발전소, 외자도입, 공설운동장, 삼학도 매립공사 문제 등 다방면으로 교섭하고 귀임 하였다는 요지의 보고가 있었음

◇명 남 철 의원

- 사료적정 배급 진정차 상도 절충하였다는 보고를 들은바 있으나 이에 관련된 부산물 문제에 대하여 산업과장을 상대로 질의를 전개할 것을 동의. 재청, 삼청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명 남 철 의원

- 시험도정한 현물이 사료의 실지현물과 차이가 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배급량이 종전의 양과 틀린 이유는 무엇인가.

◇김 남 진 의원

- 작년 중에 당 의회의 결의로써 특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공장별로 부산물 미정리량을 계수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현품으로 회수하도록 집행부 측에 이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측은 의회 측에 일언반구 상의조차 없이 대금으로 정리한 것 같이 하였음은 실로 유감천만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대한 경위를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김 성 균 의원

- 김남진 의원의 발언과 동일한 내용의 질문이 있었음.

◇김 경 인 의원

- 저반 지상을 통하여 조작사무가 도로 이관케 되었다는 담화발표를 보았는데 이의 사실 여부 및 사실이라면 그의 경위와 종전대로 환원시킬 의사는 없는가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김 연 수 산업과장 답변

- 김경인 의원 질문의 조작 사무의 도 이관은 사실이며 그 원인은 도직영을 함으로써 제반사무의 신속을 기하며 경비의 절약을 도모한다는 견지 일 것이며 당분간 시험 삼아 하여본다는 것입니다.

◇김 남 진 의원

- 저반에 본 의원 등이 도입양곡 착항지 도정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상도한 바 있었는데 그 당시 양정과장과 밀의하였던 결과 무안군으로 배당분 430톤을 당시에 도정하기로 내약을 얻고 귀임 즉시 시장님과 관계과장에 계만 차지를 전달하였는데 이 말이 그날 즉시 도당국에 누설되어 좌절케 되었으니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밝혀 주기 바라며 주무 만부당한 말인 것이다.

◇김 성 균 의원

- 착항지 도정의 원칙이 엄연함에도 불구하고 타지방에 뺏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김 연 수 산업과장 답변

- 명남철 의원 질문의 시료 현품의 질적저하 문제는 감독 불충분의 소치도 있겠으나 정강과 조강을 혼합하여야 되는데 이를 못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김남진 의원 질문의 의회 결의도 없이 부산물 미정리량을 대금으로 청산 지었느냐의 문제는 중앙으로부터의 부산물 처리 요망 (김문옥씨 보관)에 의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 남 진 의원

- 김 산업과장의 답변과 본 의원의 질문은 상당히 거리가 멀다 그는 사고량

으로써 2만여 가마니의 미회수량을 매출하여 넘겨주었는 것을 그 전에 소홀히 취급한 까닭이다.

◇정 응 표 의원

- 김남진 의원의 발언과 같이 무안군으로 배당되었던 420톤 도정문제가 그 즉시 외부에 누설된 점에 대하여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며 이에 수반하여 느껴지는 것은 현금 일부 시 간부들 중에는 인사이동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러한 문제도 상세히 규명하여야 될 문제라고 보아진다.

◇김 경 인 의원

- 이 문제에 대하여는 관계과장과 주무당사자의 앞으로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을 전제로 본 건 토론 종결할 것을 동의.
재청, 삼청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박 두 순 의원

- 저반 당의회의 결의로써 해양고등학교에 현금 백만원의 보조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우금 하등의 조치가 없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현하 해교의 신축교사 준공 도정에 있는 차제이오니 앞으로 이의 지급가능 여부를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하 시장

- 제 의원께서 작년도 결산 안이나 신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숙지하실 것으로 믿어지는 바이나 작년도에는 근근히 적자결산을 면하였다 허나 사실상 본 건 보조 문제는 현재의 실정으로는 난망인 것이며 이 사정을 저반에 전화로 해양고등학교에도 연락한바 있습니다.

◇김 삼 성 의장

- 부의안건 상정 선언

◇김 상 대 의원

- 본 회기의 의사일정표에 의하면 8일간으로 되어있으나 휴일을 제하면 사

실상 6일간 밖에 안 되는데 제반회계의 결산 승인 등 중요한 안건을 단기간 내에 처결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 시 되오니 회기를 2일간 연장하여 10일간으로 할 것을 동의. 재청, 삼청

◇김 경 인 의원

- 김상대 의원의 동의도 일리가 있다고 보아지나 교육위원회의 결산안도 상정이 안되었다고 보아지니 차라리 제반 회계의 결산안과 교육위원선거는 차후 총선거 후로 미루고 기타안건만을 심의하도록 8일간을 4일간으로 단축할 것을 개의.

재청, 삼청

◇정 응 표 의원

- 결산승인이라 함은 예산 집행에 대한 신임행위일진데 이를 보류한다는 것은 이의 불신태도일 것이며 또는 이 안건을 총선거와 결부시킨다는 것은 언어도단일 것이니 김상대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는 바이다.

◇김 삼 성 의장

- 개의와 동의의 표결선언

김경인 의원 개의 표결결과 - 재석 15명 중 가 8표 가결.

※단기 4291년도 제 3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단기 4291년 제 2회 목포시 동정 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목포시 도선비 특별 회계 설치안

※단기 4291년도 목포시 도선비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종 차량적재선 신조경비 기채 승인안

※목포시 동세 조례 개정안

※목포시 의회 의원 비용 변상 조례 개정안

※단기 4291년도 목포시 교육 위원회 일시 차입안

◇장 건 식 총무과장

- 제안이유 설명

◇김 삼 성 의장

- 각 안건 해당 상임 분과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선언하다.

◇김 상 대 의원 긴급동의

- 저반에 각 동에 배부한바있는 수해 구호 대책금과 공채소화 관계에 대한 조사단을 2반을 구성하여 각 동을 조사기로 하여 금 회기 중에 보고토록 하 되 조사단 지명은 의장에게 일임 할 것을 동의. 재청, 칠청 표결결과 만장일 치로 가결되다.

◇김 삼 성 의장

- 1반 정응표, 김상대, 김경인 의원을 2반 임석희, 김일섭, 조양순 의원으로 할 것을 지명

◇김 경 인 의원

- 현금 향만 준설사업을 실시하는 반면 행복동 공동 변소 부근에는 진개 적 치장이 되어 향만 매몰상태에 놓여있다. 이 기회에 「행복동 공동 변소 철거 의 건」을 금 회기에 정식상정 집행부에 건의할 것을 동의. 재청, 삼청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삼 성 의장

- 산회 선언. 하오 12시 50분 현재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날인 함

단기 4291년 4월 일

시의원 김성균

시의원 김경인

작성자 서기 주도식

제80회 제2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1년 4월 4일 상오 10시 30분

2. 폐 의 : 단기 4291년 4월 4일 하오 12시 40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삼성

5. 출석의원

재적 16명중 출석의원 14명

결석 김남진, 강영락 의원

6. 출석공무원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7. 의사 일정

가. 보고사항

(1) 각 상임 위원회 회의 상황보고

(2) 각 동 특별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보고

나. 부의안건

제 1차 회의시와 동일함 (각종 회계 결산안 및 교육위원 보선의 건 제외)

8. 토의 사항

※각 상임위원회 회의 상황보고

◇김 상 대 의원

- 문교 사회위원회 소관 각종 안전을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를 보아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김 창 희 의원

- 산업분과위원회 소관 각 안전 역시 원안 무수정 통과를 보아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김 경 인 의원

- 재무위원회 소관 안전 중 동세 조례 개정안 제 3조 중 100분지 150으로 되어있는 것을 100분지 150이하로 수정할 것을 조건부로 하고 기타는 원안 통과를 보았으며 문교 산업위원회에서 회부된 안전도 역시 원안 무수정 통과를 보았다는 요지의 보고가 있었음.

※각동 특별 조사 위원회 조사 결과보고

◇김 상 대 의원 보고

- 죽교 1구동- 34,545환이 지급되었는데 관계 직원부재로 조사 불능이었다.
죽교 2구동- 83,625환이 지급되어 18명에게 4,575환씩 배부한 것처럼 서류가 되어 있었으나 수인을 직접 상대하여 조사하였는바 유도삼씨에게는 2,500환을 당초 지출하였다가 본인의 항의로 추가 지급하였으며 강씨 외 2명 분은 동장자신이 인장을 조각하여 영수되었고 1세대당 2인명의로 배부된 분도 있었다. 이로써 동민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이다.

죽교 3구동- 풍수해구호금 3만환을 부득이 동 직원이 유용하였다고 사전에 고백하였으며 공채대 1만 8천환도 유용하였다 하나 봉급 수령 시 반제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용당동- 풍수해구호금 12,000환을 유용하였으나 단시일 내 반환하겠다는 말을 받았다.

산정 1구동- 풍수해구호금 196,125환 중 적십자 회비로 5만환을 입체하고 잔여액은 공평히 배부되었었다.

산정 2구동- 풍수해구호금과 공채 등 상부의 지시에 순응하여 잘 되어 있었다.

산정 3구동- 이 동 역시 잘 되어 있었다.

대성 2, 3구동- 풍수해구호금 162,675환 중 92,000환을 적십자 회비로 입체하고 잔여액은 동에 보관 중이었다. 이러한 점 주무과에서 책임을 지고 선처하여야 할 것이다.

대성 1구- 잘 되어 있었다.

양동- 풍수해구호금 181,400환 중 50,000환을 적십자 회비로 입체 공제하였으나 잔여액은 전액 공평히 배부되어 있었다.

결론으로 말하겠으나 공채의 동 유용을 철저히 단속함과 아울러 풍수해구호대책금을 적십자 회비로 공제하였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정 응 표 의원 추가보고

(1) 각 동별 풍수해 구호금의 공정배부가 안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죽교 1구동은 강우기만 되면 수해지구화 하는데 반하여 금반에 3동분 밖에 배부 안되었고 타 동은 10여동 분이 배부되었다 이로 인하여 1구동민은 배경이 없는 탓이라 하여 여론이 자자한 것이다.

(2) 각 동에서 구호금배부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음이 나타났으며 감독관청의 감독 불충분임을 느꼈다.

(3) 풍수해구호금을 각 동에 배부당시 그 일부식을 시에서 공제하였으며 적십자 회비를 풍수해 대책금에서 입체 공제한 것 등은 국가 근본방침에 배치된 소위로써 유감스럽게 느껴진다.

(4) 모 동은 동장 단독으로 기안하여 구호금을 지급하고 동 직원은 전혀 모르고 있는 등 사무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각양각색 이었다.

◇임 석 희 의원 보고

- 죽동, 무안동, 영해동, 동명동, 만호동, 서산동, 죽교 5구동 등 조사하였던 바 상부의 지시대로 배부완료 하였고 호남동은 반과 1동을 미지급 중이나 금일 중에 배부완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죽교 4구동, 유달동, 은금동은 집무시간 중 직원 부재로 조사불능 이었다.

※김경인 의원 동의의 공동 변수 철거 관계

◇명 남 철 의원

- 타 용무로 인하여 금반 회기에 조사불능이었으니 차기 회기에 조사보고 하겠다.

◇김 상 태 의원

- 풍수해구호 대책금을 시에서 배부당시 그 1부식을 공제하였다는 것과 적십자 회비로 입체하기 위하여 미납액을 차인 지불한데 대한 경위를 집행부로부터 답변하여 줄 것을 요망한다.

◇정 응 표 의원

- 확실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차기 의회에까지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로 개인의견으로 발언하다. 전원찬동

※단기 4291년도 제 3회 목포시 일반 회계 세입,출 추가 경정 예산안

◇김 창 희 의원

- 본 건 전문분과 위원회에서 심심 검토하여 회부된 것이니 원안 무수정 통과 할 것을 동의. 재청, 삼청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단기 4291년도 제 2회 목포시 동정 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김 성 균 의원

- 동정 운영의 변천된 실태를 집행부로부터 설명하여 주기 바란다.

◇김 창 희 의원

- 동장 무보수제라 함은 안될 말이다. 총선거를 목척에 두고 앞으로의 동정 운영을 여하히 할 것인가 기밀비 정도라도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장 총무과장 답변

- 동장 무보수제로 전환 시켰다하여 동정 운영상 곤란을 일으킨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 사무 수행에는 본 청 직원의 동원과 반장들의 협조를 빌려 지장 없이 하려합니다.

◇임 석 희 의원

- 본 건 역시 전문분과 위원회의 심심한 검토를 거쳐 회부된 것이오니 제반 절차를 생략하고 원안 무수정 통과 할 것을 동의. 재청, 삼청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목포시 도선비 특별 회계 설치안

※단기 4291년도 목포시 도선비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종 차량적재선 신조경비 기채 승인안

◇김 경 인 의원

- 본 건 도선비 특별 회계를 설치할 때면 일반 회계에 계상 된 도선비는 삭감시켜야 하리라고 본다. 참고로 말하나 일반 회계 4회 추가 경정 시 라도 시정하여야 될 것이다.

◇김 성 균 의원

- 의회의 통과를 거칠 경우의 기채의 확실성 여부를 묻고 싶다.

◇김 상 대 의원

- 여하한 애로를 무릅쓰고라도 기채의 확실성을 기하여 용당 목포간의 육지화를 촉구하는데 노력하여야 될 것이다.

◇하 시장

- 본 건 기채의 확실성 여부에 대하여는 과반 상경시 중앙 해무청 등에 3천만환까지는 확실한 내락을 받고 왔습니다.

◇김 성 균 의원

- 3건 공히 원안 무수정 통과 할 것을 동의. 삼청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목포시 동세 조례 개정안

◇조 양 순 의원

- 본 건 역시 원안 무수정 통과 할 것을 동의. 재청, 삼청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목포시의회 의원비용 변상조례 개정안

◇김 창 희 의원

- 원안 무수정 통과 동의. 재청, 삼청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단기 4291년도 목포시 교육 위원회 일시 차입안

◇김 성 균 의원

- 원안 무수정 통과 동의.
재청, 삼청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상 대 의원

- 신설 국민학교 부지 선정안을 이번 회기에도 급시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면 쓰겠다.

◇이 정 권 의원

- 해안을 논의하려면 교육청 회계 감사 결과보고를 청취한 연후 상정하여야 될 것이다.

◇김 성 균 의원

- 김상대 의원 발언에 찬성 발언

◇김 경 인 의원

- 본 건 의결만 시켜 가지고 시민을 2중 3중으로 기만시켜서는 안 될 것이니 계수적으로 확실한 내용이 밝혀지도록 까지는 보류하여야 할 것이다.

◇정 응 표 의원

- 부지 선정안을 급시안건으로 상정하자는 논과 보류하자는 양론으로 각각 일리가 있는 의견이나 결국 반대하는 측은 「돈 보따리」를 눈앞에 보아야 이를 시인할 것 같으니 본 건 역시 결산 심의시가지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정 권 의원

- 90년도 미 보조분이 아직까지 내시가 없다 이를 계상하여 우리를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

◇김 경 인 의원

- 정응표 의원의 찬성 발언

◇김 섬 성 의장

- 폐회 선언. 하오 12시 40분

이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날인 함

단기 4291년 4월 일

시의원 김성표

시의원 김경인

작성자 서기 주도식